



- ◎ 주님, 마리아의 깃발 아래 모여 통사하는 저희에게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마리아께 대한 굳은 신뢰심을 주소서. 이로써 저희는 세상을 정복하렵니다. 사랑으로 불타는 험찬 믿음을 저희에게 주소서. 이 믿음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으로 저희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, 이웃 인에서 항상 주님을 뵙고 섬기렵니다. 바위와 같이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소서. 이 튼튼한 믿음을 통하여 삶의 심자가 와 노고와 실패속에서도 평온하고 꾸꿋하게 나아가렵니다. 저희 힘을 복돋우는 용감한 믿음을 주소서. 이 용감한 믿음에 힘입어,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큰 일을 서슴지 않고 떠맡아 안다 하렵니다. 저희 레지오의 “불기동”이 월 믿음을 주소서. 이 믿음으로써 저희가 한데뭉쳐 나아가며,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불을 온 누리에 밝히어, 모두들과 죽음의 그늘 밑에 있는 모든 이를 깨우치렵니다. 또한 미지근한 이들을 열정으로 불태우고, 죄로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렵니다. 그리하여 마침내 한평생 쌓움이 끝난 다음, 저희 레지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, 주님의 사랑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는 믿음을 주소서. 아멘.
- ◎ 세상을 떠난 저희 레지오 단원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. 아멘.
- < 곧 이어 사제의 강복을 받는다. 사제가 불참일 때는 성호만 갖는다. >
- +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, 아멘.

- 당신께 매달리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.
- 기도합시다.
-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도님,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.
- 비오니, 마리아의 천구를 들으시어,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.
- 이멘.

마침 기도

-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, 아멘.
- +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, 저희를 지켜 주시고 어려울 때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소서.
- 또한 온갖 위험에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 주소서.
-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여,
- 타없이 깨끗하신 마리아,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,
- < 다만 주희 때에는 이를 뺄때마다 이름으로 바꾼다. >
-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.
- 성 미카엘과 성 가브리엘,
- 성 모님의 천상 군단, 모든 천사들이여,
-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.
- 천체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.

래지오의 기도문 시작 기도

○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,
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 보소서.

● 귀양살이 끝날 때에
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빙게 하소서.

○ 오소서, 성령님,
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
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.

●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.
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.

○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.
 기도합시다.

○ 하나님,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
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.

○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

○ 아멘.

○ 주님,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.

● 제 입이 주님을 친미할 것입니다.

○ 하나님, 저를 도와 주소서.

● 주님, 어서 오시어 저를 도와 주소서.

○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,
 처음과 같이 이체와 항상 영원히. 아멘.

○ 사도 성 요한,

●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.

○ 몽포르의 성 루도비꼬-마리아

●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.

●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

○ 목주기도 5단을 마친다.)

●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,

● 우리의 생명, 기쁨, 희망이시여,

● 당시 우리나라 하늘의 그 자손들이

 눈물을 흘리며 무르짖나이다. 슬픔의 글짜기에서,

래지오의 까띠나

◎ <후렴> 먼동이 트이듯 나타나고, 달과 같이 아름답고,
 해와 같이 빛나며, 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
 저 여인은 누구설까?

○ 내 영혼이 주님을 친송하며,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
 마음 기뻐 뛰노나니, 당신 종의 배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.
● 이세로부터 과연 만세! 나를 복되다 일컬으라니 능하신
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요 그 이름은 “거룩하신 분”
 이시로다.

○ 그 인자하심은 세세 대대로
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.
● 당신 팔의 큰힘을 떨쳐 보이시어
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훌으셨도다.
○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
 미친한 이를 끌어 올리셨도다.
●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
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.
○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중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
●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
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암약하신 바로다.

○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
 처음과 같이 이체와 항상 영원히. 아멘.
◎ <후렴> 먼 동이 트이듯 나타나고, 달과 같이 아름답고,
 해와 같이 빛나며, 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
 저 여인은 누구설까?

○ 원죄 없이 임태되신 마리아님,